

#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金正澤. 沈惠淑

서강대학교 상담실

본 연구의 목적은 칼 융의 성격이론에 기초를 둔 마이어스 브리그스의 성격유형검사(MBTI)를 한국에 소개하여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성격유형을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를 보다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격유형검사를 실제 상담장면에서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의 표준화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는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첫단계는, 이중언어(영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주교포 남녀성인 201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녀 성인 200명, 그리고 남녀 대학생 141명과 고등학생 232명 총 77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과정에서 한국어판 MBTI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연구의 두번째 단계는,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어판 MBTI를 사용하여 한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의 성격유형의 기초적인 표준(Norm)을 제시해 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지방도시의 고등학생 1,142명, 대학생 1,441명, 그리고 일반인 2,617명 모두 5,200명이 임의표집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각 그룹의 성격유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외국와 상대그룹과 비교분석하여 문화적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MBTI활용성 여부, 특히 상담장면과 산업장면에서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 본 연구의 두번째 단계는 미국 United Board(UB)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칼 융의 성격이론에 기초를 둔 마이어스 브리그스의 성격유형검사(MBTI)를 한국에 소개하여 상담장면에서 내담자의 성격유형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깊은 관계의 차원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고등학생 집단, 대학생 집단, 그리고 일반인의 성격유형을 미국 사회와 비교해 봄으로써 서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비교문화적 연구의 의의도 찾을 수 있겠다.

인간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어 개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려했던 최초의 시도는 바로 에니오그램(Enneagram)으로 불리는 수피교의 신비주의로, 그들은 9가지 숫자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에니오그램은 기원전 2,5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Riso, 1987) 가장 오래된 인간의 성격모형인 에니오그램에서는 인간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심리적인 지향, 예를 들면 정서, 행동,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고대 동양의 점성가와 회랍의 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공기, 물, 땅, 그리고 불과 같은 원소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고전적인 시도 후에도 인간의 성격 특징을 유형화 함으로써 보다 자세히 개인차를 설명해보려는 시도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인간의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욕구에 힘입어, 칼 융(C. G. Jung)은 사람들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그의 심리유형이론(Psychological types)을 제시했다. 융(1976)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는 그사람의 내부(inwardly)에서나 아니면 바깥(outwardly)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외향성이 된다. 그는 인간이 외부 환경을 대하는 방법에도 사람에 따라 각기

특색한 기능이 있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각이나 직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인식형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고나 감정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판단형임을 관찰하였다. 융은 이러한 기능의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선호성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

마이어스 브리그스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칼 융의 심리유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선호경향을 알아내는 성격검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칼 융의 심리유형이론(Psychological Type)의 중요 개념을 설명한 후, 마이어스 브리그스 성격유형검사(MBTI)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II. 칼 융의 심리유형 이론

칼 융은 자신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Analytic Psychology)이라 불렀는데, 이는 많은 관찰가능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이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융은 인간 성격의 구조를 自我(Ego), 개인적 無意識(Personal Unconscious), 집단적 無意識(Collective Unconscious), 自己(Self)로 분류하고, 意識의 중심을 自我로 보았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성숙의 목표는 의식층과 무의식층을 모두 포함한 전 인격의 중심인 自己의 완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自己에 도달하는 과정을 융은 개별화 과정이라 표현했는데, 개별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의식층에 억눌려서 그림자(Shadow)로 남아있는 부분이나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여러가지 원형(Archetype)과 같은 무의식적 요소의 의식에로의 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Jung, 1976)

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세밀하게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독특한 기능이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과 연관되는가를 깊이 있게 추적하고 있음으로 실제로는 응용심리학적 측면이 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융의 심리유형이론의 요점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 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가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한다.(Jung, 1976) 그의 심리유형이론의 특징은 심리적 경향의 동적(動的)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있다. 즉 몇가지 특징적인 경향이 지니는 구조간의 동적관계를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그리고 정신기능을 중심으로하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융이 태도(attitude)라 부르는 외향성(extra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은 개인 정신에너지 흐름의 방향으로, 이 방향의 결정은 선천적이며 외향 혹은 내향이라는 양극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정신기능 역시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라는 양극성 안에서 개인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며, 이에 따라 개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고유의 성격유형이 나타난다고 했다. 과연 융의 이론대로 태도와 정신기능이 양극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융은 "...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오랜 세월의 체험속에서 체득된 개념입니다."(Jung, 1976. p.437)라고 대답했다.

융은 그의 심리유형이론에서 4가지 정신기능이 두가지의 다른 태도(외향, 내향)와 조합되어 다음과 같은 8가지 심리유형을 도출해 낸다고 보았다.

(1) 외향적 사고형(ET) (5) 외향적 감각형(ES)

(2) 내향적 사고형(IT) (6) 내향적 감각형(IS)  
(3) 외향적 감정형(EF) (7) 외향적 직관형(EN)  
(4) 내향적 감정형(IF) (8) 내향적 직관형(IN)

합리주의적 사고의 전성기였던 19세기에 비합리적인 정신기능인 직관과 감각기능을 합리적인 사고와 감정기능에 함께 포함시켜 인간의 정신기능으로 인정한 점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칼 융의 폭넓은 안목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특히 지적편중의 합리적 평가를 중시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신기능의 불균형과 그 장애의 근거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유익한 가설이라 볼 수 있겠다.

### III.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 1. MBTI의 발달과정

MBTI는 칼 융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1900년에서 1975년에 걸쳐 Katherine Briggs와 그녀의 딸 Isabel Myers, 그리고 손자 Peter Myers에 이르기까지 무려 삼대에 걸쳐 70여년의 세월속에 만들어졌다. Briggs와 Myers는 20여년에 걸친 "인간관찰(people watching)"을 통하여 융의 심리유형이론의 타당성을 확증하였고, 이러한 확증에 따라 성격유형을 잡아낼 수 있는 타당한 질문지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Form A,B,C,D,E

MBTI검사는 1942년에서 1944년에 걸쳐 각 성격유형의 특성을 포착하는 실험문항들이 구성되었고, 그후 수차례의 실험을 거친 후 Form A가 제작되었다. Form A의 문항을 바탕으로 적어도 .60이상의 타당성을 가지고 각 개인의 성격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Form B를 재구성 하였다.

곧 이어 문항간의 상관관계계수를 측정하여 ( $EI \times TF = .14$ ;  $EI \times SN = .19$ ), 문항의 점수무게(Weight)를 재조정하여 1947년 Form C가 제작되

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예측비율 기능 (Prediction Ratio=PR)으로써 예측기능이 .60 미만일때는 0점을 주고 예측기능이 .60에서 .69 일 때는 1점을 주었으며, 예측기능이 .70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2점을 주었다.

그후 계속적인 검증을 통하여 1956년과 1958년에 걸쳐 Form D가 제작되었다. Form D는 짝으로 되어있는 문항(Word pair)을 추가하여 2,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PR 이 .60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PR검증이 끝난 문항들로 Form E가 제작되었다.

#### Form F

그후 5,000명의 의과대학생들과 10,000명의 간호사들을 표집하여 Tie-breaking Formula를 적용하여 선호경향 강도를 측정하는 Form F가 1962년에 제작되었다. Form F는 Educational Testing Service를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

#### Form G

1970년 초반까지 Form F를 표준형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그후 문화적 변화의 요소를 감안한 문항분석이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3,36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다시 문항분석을 하여 마침내 1975년 Form G를 완성하였다. (Myers & McCaulley, 1985) Form G는 125문항짜리 Long Form과 95문항으로 구성된 Short Form으로 제작되었는데, 차이점은 Long Form에는 피험자의 유형을 알아내는 문항이외에 계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문항이 첨가되어있다. Briggs와 Myers의 연구에서는 융의 이론에서 제시된 외향성-내향성(EI)과 감각-직관(SN), 그리고 사고-감정(TF)외에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판단-인식(JP)을 개발하여 그 기능을 MBTI에 삽입하였다. 이 JP개념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바깥세상에 대한 태도와 행위(attitude and behavior)를 묘사하고 둘째는 외향-내향(EI)

과 함께 선호된 성격기능 중 어느 기능이 선호 또는 주기능이며 어느기능이 부기능인가 하는것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 2. MBTI의 4가지 선호성

MBTI에서는 인간의 성격유형이 4가지 선호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4가지 선호적도의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어 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MBTI에서 나타내고 있는 4가지 선호성 지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외향성-내향성(EI: Extraversion-Introversion); 주의집중과 에너지의 방향, 원천

EI지표는 개인이 외향성인가 내향성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Jung은 내향성과 외향성이 “상호보완적”인 태도임을 강조했다.

외향성(E) 사람들은 주로 외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도 사람과 대상등 외부세계와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외향성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되며, 외부세계가 당신의 에너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된다. 외향성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 경험을 필요로 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활달해 보이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내향성(I) 사람들은 주로 내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역시 개념이나 사상등 자신의 내부세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내향성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이것이 당신의 에너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된다. 내향성인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가 생각을 주로하는 활

동을 많이 요구할 때 더 많은 흥미와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먼저 생각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2) 감각-직관(SN : Sensing-iNtuition) ; 정보 수집(인식) 기능

SN지표는 두가지 인식의 기능중 개인이 선호하는 한가지를 반영한다. 감각(S)경향은 오관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각을 통하여 관찰되는 사실과 사건을 보고하는 감각과정에 근거하고, 직관(N)은 오관보다는 직관과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의식을 넘어 작용하는 의미, 관계, 또는 가능성을 보고함을 뜻한다.(직관은 영문자 N으로 표기)

감각기능(S)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외적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눈, 귀 그리고 다른 감각기관들 즉 자신의 오관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감각기능은 상황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무엇이 현재 이 상황(Here and Now)에 주어졌는가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근면성실한 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보기 위해 때로는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직관기능(N)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관에 의해 얻어진 정보의 차원을 넘는 가능성이나 보다 심오한 의미와 전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감에 의존하여 얻어낸다. 직관은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만일 당신이 직관형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추구하며 모색하게 된다. 직관형은 상상력과 영감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둔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에 머무르기 보다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더욱 즐기고 전체를 보기위해 세밀한 사항은 간과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일, 복잡한 일에 겁 없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3) 사고-감정(TF : Thinking-Feeling) ; 의사결정(판단) 기능

일단 당신이 인식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당신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 결정, 선택을 하게 된다. TF지표는 두가지 비교되는 판단 방법중 개인이 선호하는 한 방법을 나타내 준다. 어떤 사람은 개인과는 관계없이 논리적 결과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고형(T)이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 인간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감정형(F)이다.

사고형(T)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들을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당신이 사고기능을 활용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 결정에 다다른다. 이런 사람들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중시하며 내가 그것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실한가(True)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편이다.

감정형(F)의 사람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더욱 초점을 두므로,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신이 감정기능을 활용한다면 객관적인 기준 보다는 당신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당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 감정기능(F)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

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재치가 있는 편이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보편적인 선(Goodness)을 더욱 선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며 사람에 대한 열정이 많은 편이다. 여기서 감정(Feeling)기능이란 Emotion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사람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Value)”를 뜻한다.

#### 4) 판단-인식(JP : Judging-Perception) :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

마지막 선호의 지표는 당신이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JP지표는 개인이 외부세계를 다루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어떤 사람은 사고나 감정의 판단과정을 사용하기를 선호하고, 또 다른 개인은 감각이나 직관의 인식과정을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판단(J)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질서있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판단기능(J)을 쓸 때는, 결정하고, 일에 종결을 짓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일이 정착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흔히 이들은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미리 준비하는(Planned)편이며, 정한 기간내에 일을 마무리 짓는 편이다. 여기서 판단(Judging)이란 당신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구조화된 접근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비판적, 혹은 판단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인식(P)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삶을 통제하기 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

하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믿고, 과정을 즐기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적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회를 좋아하고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도 잘 적응해 나간다. 모든 경험에 열려져 있고 정한 시간내에 일을 마무리짓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때 그때 자발성(Spontaneity)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편이다.

#### 3. MBTI의 16가지 성격유형

위에서 설명한 MBTI의 4가지 선호경향이 조합되어 아래 도표와 같이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만들어낸다.

MBTI의 4가지 선호지표는 여덟가지의 선호성을 구성하며, 그중의 네가지 선호성을 누구나 택하게 되어있다. 성격유형은 MBTI검사를 받았을 때 개인이 선택한 4가지 선호성의 조합이며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만약 각각의 선호를 그러한 선호를 표시하는 글자로 나타낸다면, 개인의 타입은 네글자로 코드화 되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다면, ESTP는 외향적이며(E), 감각(S)기능에 의해 정보를 얻고, 의사를 결정할 때는 사고기능(T)을 이용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는 주로 인식적(P)인 사람을 의미한다. ESTP 지표에서 반대선호를 가진 사람은 INFJ이다. 이런 사람은 내향적(I)이며, 직관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고(N),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F)을 이용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판단적 태도(J)를 가진다. 그러므로 MBTI의 성격유형은 다음과 같이 16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16가지 성격유형 도표

|      |      |      |      |                |
|------|------|------|------|----------------|
| ISTJ | ISFJ | INFJ | INTP | E 외향성<br>I 내향성 |
| ISTP | ISFP | INFP | INTP | S 감각<br>N 직관   |
| ESTP | ESFP | ENFP | ENTP | T 사고<br>F 감정   |
| ESTJ | ESFJ | ENFJ | ENTJ | J 판단<br>P 인식   |

#### 4. MBTI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

원래의 MBTI영어판 검사는 반분검사(Split-half)의 방법과 재검사(Test-retest)방법을 통해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반분검사를 통한 신뢰도 검사를 위한 표집은 대학생 4,744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EI지표는 .63에서 .99, SN지표는 .75에서 .90, TF지표는 .67에서 .86, 그리고 JP지표는 .80에서 .88로 검증되었다. (Myers, 1985) 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280명의 여자 대학생과 140명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2개월 간격으로 검증되었는데, EI지표는 .83, SN지표는 .78, TF지표는 .82, 그리고 JP지표는 .82였다. (Levy, Murphy, & Carlson, 1972)

MBTI의 타당도 검증은 Isabel Myers(1985)에 의해 5,355명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12년 동안의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추수연구에서 McCaulley(1977)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예측된 전문의 분야를 선택한 사실을 의미있게 밝혀내었다. 보기를 들면 ISFP형은 마취과를 INFP형은 정신과를 선택하였다.

Carlyn(1977)은 MBTI의 EI지표와 SVIB, MMPI, Social Introversion, OPI Social Extraversion, 그리고 16PF Extraversion에서 .50에서 .70

의 상관관계를 얻었다. Sticker and Ross(1963)는 Gray-Wheelwright 질문지와 MBTI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는데 EI지표는 .79, SN지표는 .58, TF지표는 .60임을 검증하였다.

#### IV. MBTI의 한국판 제작과정

MBTI의 한국 표준화작업은 1987년에서 1990년에 걸쳐 심혜숙, 김정택(1990)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일차적 표준화 작업으로는 이중언어(영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주교포 남녀 성인 201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녀 성인 200명, 그리고 한국인 남녀 대학생 141명과 고등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준화의 첫단계는 영어판 MBTI Form G를 Nida(1964)의 Cross-cultural research translation이론에 입각하여 번역하였다. 사회문화적 편차(bias)를 줄이고 원문항이 의도하는 심리적 상반반응(Psychological opposition)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Pilot-test, Back-translation, Bilingual Method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표준화의 두번째 단계로는 Test-retest, Split-half 방법을 이용한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문항 분석 과정을 통해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Inter-correlation of item scales)를 밝혔다. (심혜숙, 김정택, 1990)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재미교포 성인 201명을 대상으로 밝혀진 한국판 MBTI의 신뢰도(Reliability)지수는 다음과 같다. 반분법(Split-half)에 의한 내적 신뢰도는 EI 지표는 .77, SN지표는 .81, TF지표는 .78, 그리고 JP지표는 .82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각각 검증되었다. 또한 재검사(Test-retest) 방법으로 검증해본 결과 EI지표는 .86, SN지표는 .85, TF지표는 .81, 그리고 JP지표는 .88로 더 높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심혜숙, 김정택, 1990) 표1은 각 지표간의 내적상관관계(Inter-correlation of Scales)를 나타내고 있다.

표1 각 지표간의 내적 상관관계지수

| 檢査紙    | 性 인원  | EI/SN | EI/TF | EI/JP | SN/TF | SN/JP | TF/JP |
|--------|-------|-------|-------|-------|-------|-------|-------|
| Korean | M 97  | -.08  | .00   | -.06  | .16   | .17   | .44   |
| Form G | F 104 | -.01  | -.13  | -.11  | .22   | .34   | .25   |
| Total  | 201   | -.05  | -.05  | -.09  | .14   | .25   | .28   |

MBTI영어판과 한국어판 사이의 구성 타당도 (Concurrent Validity)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어판과 영어판간의 타당도

| 檢査紙    | 性 인원  | EI/EI | SN/SN | TF/TF | JP/JP |
|--------|-------|-------|-------|-------|-------|
| Korean | M 97  | .89   | .88   | .83   | .92   |
| Form G | F 104 | .93   | .91   | .93   | .90   |
| Total  | 201   | .91   | .90   | .90   | .91   |

문항분석을 통해 변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조사해본 결과 문항 비중(Item weights)의 예언도(Prediction ratio)는 표 3과 같다.

표3 문항 예언도(Prediction Ratio)

|   |     |   |     |
|---|-----|---|-----|
| E | .71 | I | .76 |
| S | .77 | N | .77 |
| T | .71 | F | .91 |
| J | .76 | P | .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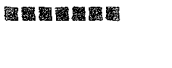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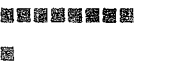
## V. 연구 방법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한국어판 MBTI를 사용하여 서울과 지방도시의 고등학생 1,142명, 대학생 1,441명, 그리고 일반인 2,617명 총 5,200명을 임의 표집하여 MBT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판 MBTI의 기초적인 표준(Norm)을 제공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성격유형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비교문화적 차이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MBTI의 한국에서의 활용성 여부를 상담장면과 산업장면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총 5,200명에 대한 MBTI검사는 1988년 9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이 검사결과는 서강대학교 전산실에서 컴퓨터로 채점되고 분석 되었다.

## VI. 결과 및 논의

표4는 전체 고등학생 1,142명의 성격유형 분포도이다.

표4 고등학생(전체)  
N=1142 (M=692, F=450)

| 감각                                                                                                                      |                                                                                                                        | 직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b>ISTJ</b><br>N=140<br>%= 12.26<br>   | <b>ISFJ</b><br>N= 80<br>%= 7.01<br>   | <b>INFJ</b><br>N= 22<br>%= 1.93<br>   | <b>INTJ</b><br>N= 36<br>%= 3.15<br>   |
| <b>ISTP</b><br>N=144<br>%= 12.61<br>  | <b>ISFP</b><br>N= 75<br>%= 6.57<br>  | <b>INFP</b><br>N= 51<br>%= 4.47<br>  | <b>INTP</b><br>N= 38<br>%= 3.33<br>  |
| <b>ESTP</b><br>N=125<br>%= 10.95<br> | <b>ESFP</b><br>N= 99<br>%= 8.67<br> | <b>ENFP</b><br>N= 64<br>%= 5.60<br> | <b>ENTP</b><br>N= 37<br>%= 3.24<br> |
| <b>ESTJ</b><br>N=121<br>%= 10.60<br> | <b>ESFJ</b><br>N= 61<br>%= 5.34<br> | <b>ENFJ</b><br>N= 17<br>%= 1.49<br> | <b>ENTJ</b><br>N= 32<br>%= 2.80<b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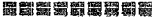
|    | N   | %     |
|----|-----|-------|
| E  | 556 | 48.69 |
| I  | 586 | 51.31 |
| S  | 845 | 73.99 |
| N  | 297 | 26.01 |
| T  | 673 | 58.93 |
| F  | 469 | 41.07 |
| J  | 509 | 44.57 |
| P  | 633 | 55.43 |
| ST | 530 | 46.41 |
| SF | 315 | 27.58 |
| NF | 154 | 13.49 |
| NT | 143 | 12.52 |
| SJ | 402 | 35.20 |
| SP | 443 | 38.79 |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지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감각형을 선호(7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형이 58%로 감정형보다 조금 더 많고, 인식형의 비율이 55%로 판단형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분류하여본 결과가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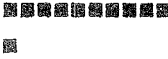
표5 고등학생(남자)

N=692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ISTJ<br>N= 71<br>%= 10.26<br>                                                                                          | ISFJ<br>N= 32<br>%= 4.62<br>   | INFJ<br>N= 12<br>%= 1.73<br>   | INTJ<br>N= 25<br>%= 3.61<br>   |
| ISTP<br>N=116<br>%= 16.76<br><br>  | ISFP<br>N= 49<br>%= 7.08<br>  | INFP<br>N= 33<br>%= 4.77<br>  | INTP<br>N= 18<br>%= 2.60<br>  |
| ESTP<br>N= 90<br>%= 13.01<br><br> | ESFP<br>N= 65<br>%= 9.36<br> | ENFP<br>N= 36<br>%= 5.20<br> | ENTP<br>N= 24<br>%= 3.47<br> |
| ESTJ<br>N= 71<br>%= 10.26<br>                                                                                        | ESFJ<br>N= 27<br>%= 3.90<br> | ENFJ<br>N= 8<br>%= 1.16<br>  | ENTJ<br>N= 15<br>%= 2.17<br> |

|    | N   | %     |
|----|-----|-------|
| E  | 336 | 48.55 |
| I  | 356 | 51.45 |
| S  | 521 | 75.29 |
| N  | 171 | 24.71 |
| T  | 430 | 62.14 |
| F  | 262 | 37.86 |
| J  | 261 | 37.72 |
| P  | 431 | 62.28 |
| ST | 348 | 50.29 |
| SF | 173 | 25.00 |
| NF | 89  | 12.86 |
| NT | 82  | 11.85 |
| SJ | 201 | 20.05 |
| SP | 320 | 46.24 |

N=450

| 참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ISTJ<br>N = 69<br>% = 15.33<br>   | ISFJ<br>N = 48<br>% = 10.67<br>  | INFJ<br>N = 10<br>% = 2.22<br>   | INTJ<br>N = 11<br>% = 2.44<br>   |
| ISTP<br>N = 28<br>% = 6.22<br>    | ISFP<br>N = 26<br>% = 5.78<br>   | INFP<br>N = 18<br>% = 4.00<br>   | INTP<br>N = 20<br>% = 4.44<br>   |
| ESTP<br>N = 35<br>% = 7.78<br>  | ESFP<br>N = 34<br>% = 7.56<br> | ENFP<br>N = 28<br>% = 6.22<br> | ENTP<br>N = 13<br>% = 2.89<br> |
| ESTJ<br>N = 50<br>% = 11.11<br> | ESFJ<br>N = 34<br>% = 7.56<br> | ENFJ<br>N = 9<br>% = 2.00<br>  | ENTJ<br>N = 17<br>% = 3.78<b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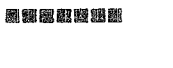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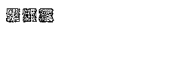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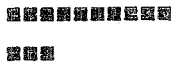
|    | N   | %     |
|----|-----|-------|
| E  | 220 | 48.89 |
| I  | 230 | 51.11 |
| S  | 324 | 72.00 |
| N  | 126 | 28.00 |
| T  | 243 | 54.00 |
| F  | 207 | 46.00 |
| J  | 248 | 55.11 |
| P  | 202 | 44.89 |
| ST | 182 | 40.44 |
| SF | 142 | 31.56 |
| NF | 65  | 14.44 |
| NT | 61  | 13.56 |
| SJ | 201 | 44.67 |
| SP | 123 | 27.33 |

표 5와 6을 통해서 남녀 고등학생을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vs. 54%) 또한 남녀의 일반적인 특성이 예측해주는 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감정형이 많다. (46% vs. 38%) 재미있는 사실로는 여학생 자체만 보았을때는 사고형이 54%로써 감정형의 46%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인식형이 많았다.(62% vs. 45%) 이 차이를 한국 가족제도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에 기대하는 규율과 제도에 대한 순응이 남아들 보다는 여아들에게 더 주어진다는 문화적 기대가치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인식형이 62%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현 중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엄격한 규율과 체계, 그리고 주입식 학습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청소년기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7은 전체 대학생의 성격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7 대학생(전체)  
N=1,441(M=796, F=645)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b>ISTJ</b><br>N=243<br>%= 16.86<br>   | <b>ISFJ</b><br>N=116<br>%= 8.50<br>   | <b>INFJ</b><br>N= 33<br>%= 2.29<br>   | <b>INTJ</b><br>N= 68<br>%= 4.72<br>   |
| <b>ISTP</b><br>N=115<br>%= 7.98<br>    | <b>ISFP</b><br>N=112<br>%= 7.77<br>   | <b>INFP</b><br>N= 80<br>%= 5.55<br>   | <b>INTP</b><br>N= 45<br>%= 3.12<br>   |
| <b>ESTP</b><br>N= 94<br>%= 6.52<br>  | <b>ESFP</b><br>N=100<br>%= 6.94<br> | <b>ENFP</b><br>N= 66<br>%= 4.58<br> | <b>ENTP</b><br>N= 39<br>%= 2.71<br> |
| <b>ESTJ</b><br>N=188<br>%= 13.05<br> | <b>ESFJ</b><br>N= 87<br>%= 6.04<br> | <b>ENFJ</b><br>N= 28<br>%= 1.94<br> | <b>ENTJ</b><br>N= 27<br>%= 1.87<br> |

|    | N    | %     |
|----|------|-------|
| E  | 629  | 43.65 |
| I  | 812  | 56.35 |
| S  | 1055 | 73.21 |
| N  | 386  | 26.79 |
| T  | 819  | 56.84 |
| F  | 622  | 43.16 |
| J  | 790  | 54.82 |
| P  | 651  | 45.18 |
|    |      |       |
| ST | 640  | 44.41 |
| SF | 415  | 28.80 |
| NF | 207  | 14.37 |
| NT | 179  | 12.42 |
|    |      |       |
| SJ | 634  | 44.41 |
| SP | 421  | 29.22 |

표 7에 나타난 한국 대학생은 내향성(56%)이 외향성(44%)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대부분이 감각형(73%)이며, 사고형(57%)이 감정형보다 그리고 판단형(55%)이 인식형보다 조금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본 결과가 표 8과 표9에 나타나 있다.

표8 대학생(남자)

N=796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ISTJ<br>N=134<br>%= 16.83<br>   | ISFJ<br>N= 60<br>%= 7.54<br>   | INFJ<br>N= 19<br>%= 2.39<br>   | INTJ<br>N= 34<br>%= 4.27<br>   |
| ISTP<br>N= 68<br>%= 8.54<br>   | ISFP<br>N= 71<br>%= 8.92<br>  | INFP<br>N= 50<br>%= 6.28<br>  | INTP<br>N= 22<br>%= 2.76<br>  |
| ESTP<br>N= 60<br>%= 7.54<br>  | ESFP<br>N= 58<br>%= 7.29<br> | ENFP<br>N= 39<br>%= 4.90<br> | ENTP<br>N= 24<br>%= 3.02<br> |
| ESTJ<br>N=103<br>%= 12.94<br> | ESFJ<br>N= 30<br>%= 3.77<br> | ENFJ<br>N= 9<br>%= 1.13<br>  | ENTJ<br>N= 15<br>%= 1.88<br> |

|    | N   | %     |
|----|-----|-------|
| E  | 338 | 42.46 |
| I  | 458 | 57.54 |
| S  | 584 | 73.37 |
| N  | 212 | 26.63 |
| T  | 460 | 57.79 |
| F  | 336 | 42.21 |
| J  | 403 | 50.75 |
| P  | 392 | 49.25 |
| ST | 365 | 45.85 |
| SF | 219 | 27.51 |
| NF | 117 | 14.70 |
| NT | 95  | 11.93 |
| SJ | 327 | 41.08 |
| SP | 257 | 32.29 |

N = 645

|    | N   | %     |
|----|-----|-------|
| E  | 291 | 45.12 |
| I  | 354 | 54.88 |
| S  | 471 | 73.02 |
| N  | 174 | 26.98 |
| T  | 359 | 55.66 |
| F  | 286 | 44.34 |
| J  | 386 | 59.84 |
| P  | 259 | 40.16 |
| ST | 275 | 42.64 |
| SF | 196 | 30.39 |
| NF | 90  | 13.95 |
| NT | 84  | 13.02 |
| SJ | 307 | 47.60 |
| SP | 164 | 25.43 |

남녀 대학생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좀 더 외향적으로 나타났다.(45% vs. 42%) 남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좀 더 외향적(49% vs. 42%)이었고, 감정형이 조금 더 많았고(46% vs. 42%), 인식형이 남자 대학생들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62% vs. 49%) 이러한 사실은 군입대나 취업등의 현실적 부담을 안고있는 남자 대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자기표현에 있어 더 자율적일 수 있으리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 결과를 서구 문화권의 고등학생들과 비교해 보았다. 3,373명을 대상으로 한 오스트랄리아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외향성(69%)이 한국의 고등학생들(49%) 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감각형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인식형(55%)이 오스트랄리아 고등학생들(50%)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유형 분포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acdaid, 1986)

미국의 남녀 대학생(Mercer University) 1,506명과 한국의 남녀 대학생 1,441명을 비교해본 결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외향성(58%)과 감정형(62%)이 한국 대학생들(외향성 : 44%, 감정형 : 43%)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표현이 자유로운 개방적인 미국문화권과 보다 전통중심적이고 폐쇄적인 한국문화권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C. G. Jung의, 서구문화권에서는 외향성이 많으리라는 가정(Fordam, 1973)을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하다.

다음에 한국 대학생들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계열로 나누어 표 10에서 표13까지에 나타내 보았다.

표10 인문과학 계열  
N=219 (M=59, F=160)

| 감각                            |                              | 직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ISTJ<br>N= 44<br>%= 14.50<br> | ISFJ<br>N= 20<br>%= 9.13<br> | INFJ<br>N= 4<br>%= 1.83<br>  | INTJ<br>N= 13<br>%= 5.94<br> |
| ISTP<br>N= 18<br>%= 8.22<br>  | ISFP<br>N= 20<br>%= 9.13<br> | INFP<br>N= 11<br>%= 5.02<br> | INTP<br>N= 5<br>%= 2.28<br>  |
| ESTP<br>N= 12<br>%= 5.49<br>  | ESFP<br>N= 13<br>%= 5.94<br> | ENFP<br>N= 8<br>%= 3.65<br>  | ENTP<br>N= 1<br>%= 0.46<br>  |
| ESTJ<br>N= 24<br>%= 10.96<br> | ESFJ<br>N= 14<br>%= 6.39<br> | ENFJ<br>N= 5<br>%= 2.28<br>  | ENTJ<br>N= 7<br>%= 3.20<br>  |

|    | N   | %     |
|----|-----|-------|
| E  | 84  | 38.36 |
| I  | 135 | 61.64 |
| S  | 88  | 40.18 |
| N  | 131 | 59.82 |
| T  | 124 | 56.62 |
| F  | 95  | 43.38 |
| J  | 131 | 59.82 |
| P  | 88  | 40.18 |
| ST | 98  | 44.75 |
| SF | 67  | 30.59 |
| NF | 28  | 12.79 |
| NT | 26  | 11.87 |
| SJ | 102 | 46.58 |
| SP | 63  | 28.79 |

표11 사회과학 계열  
N=304 (M=195, F=109)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b>ISTJ</b><br>N = 53<br>% = 17.43<br>男 28 女 25<br>男 15 女 13 | <b>ISFJ</b><br>N = 20<br>% = 6.58<br>男 10 女 10<br>男 5 女 5    | <b>INFJ</b><br>N = 5<br>% = 1.65<br>男 5<br>男 5           | <b>INTJ</b><br>N = 3<br>% = 0.99<br>男 3<br>男 3   |
| <b>ISTP</b><br>N = 36<br>% = 11.84<br>男 20 女 16<br>男 10 女 10 | <b>ISFP</b><br>N = 31<br>% = 10.20<br>男 16 女 15<br>男 10 女 10 | <b>INFP</b><br>N = 18<br>% = 5.92<br>男 10 女 8<br>男 5 女 5 | <b>INTP</b><br>N = 10<br>% = 3.29<br>男 10<br>男 5 |
| <b>ESTP</b><br>N = 14<br>% = 4.61<br>男 14<br>男 5             | <b>ESFP</b><br>N = 26<br>% = 8.55<br>男 16 女 10<br>男 10 女 10  | <b>ENFP</b><br>N = 18<br>% = 5.92<br>男 10 女 8<br>男 5 女 5 | <b>ENTP</b><br>N = 8<br>% = 2.63<br>男 8<br>男 5   |
| <b>ESTJ</b><br>N = 30<br>% = 9.87<br>男 20 女 10<br>男 10 女 10  | <b>ESFJ</b><br>N = 22<br>% = 7.24<br>男 12 女 10<br>男 10 女 10  | <b>ENFJ</b><br>N = 5<br>% = 1.64<br>男 5<br>男 5           | <b>ENTJ</b><br>N = 5<br>% = 1.64<br>男 5<br>男 5   |

|    | N   | %     |
|----|-----|-------|
| E  | 128 | 42.11 |
| I  | 176 | 57.89 |
| S  | 232 | 76.32 |
| N  | 72  | 23.68 |
| T  | 159 | 52.30 |
| F  | 145 | 47.70 |
| J  | 143 | 47.03 |
| P  | 161 | 52.97 |
| ST | 133 | 43.75 |
| SF | 99  | 32.57 |
| NF | 46  | 15.13 |
| NT | 26  | 8.55  |
| SJ | 125 | 41.12 |
| SP | 107 | 35.20 |

표12 자연과학 계열  
N=114(M=67, F=47)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ISTJ<br>N= 21<br>%= 18.42<br>   | ISFJ<br>N= 4<br>%= 3.50<br>   | INFJ<br>N= 3<br>%= 2.63<br>   | INTJ<br>N= 13<br>%= 11.40<br> |
| ISTP<br>N= 9<br>%= 7.89<br>    | ISFP<br>N= 11<br>%= 9.65<br> | INFP<br>N= 4<br>%= 3.51<br>  | INTP<br>N= 8<br>%= 7.00<br>  |
| ESTP<br>N= 6<br>%= 5.26<br>   | ESFP<br>N= 5<br>%= 4.39<br> | ENFP<br>N= 4<br>%= 3.51<br> | ENTP<br>N= 6<br>%= 5.26<br> |
| ESTJ<br>N= 15<br>%= 13.16<br> | ESFJ<br>N= 2<br>%= 1.75<br> | ENFJ<br>N= 1<br>%= 0.88<br> | ENTJ<br>N= 2<br>%= 1.75<br> |

|    | N  | %     |
|----|----|-------|
| E  | 41 | 35.96 |
| I  | 73 | 64.04 |
| S  | 73 | 64.04 |
| N  | 41 | 35.96 |
| T  | 80 | 70.18 |
| F  | 34 | 29.82 |
| J  | 61 | 53.51 |
| P  | 53 | 46.49 |
| ST | 51 | 44.74 |
| SF | 22 | 19.30 |
| NF | 12 | 10.53 |
| NT | 29 | 25.43 |
| SJ | 42 | 36.84 |
| SP | 31 | 27.19 |

표13 공학과학 계열  
N=216(M=189, F=27)

|    | N   | %     |
|----|-----|-------|
| E  | 91  | 42.13 |
| I  | 125 | 57.87 |
| S  | 114 | 52.78 |
| N  | 102 | 47.22 |
| T  | 127 | 58.80 |
| F  | 89  | 41.20 |
| J  | 116 | 53.70 |
| P  | 100 | 46.30 |
| ST | 91  | 42.13 |
| SF | 53  | 24.54 |
| NF | 36  | 16.67 |
| NT | 36  | 16.67 |
| SJ | 85  | 39.35 |
| SP | 59  | 27.31 |

한국 대학생들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공학계열별로 나누어 비교할 때 외향성과 내향성 그리고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에는 서로 큰 차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정보 수집 기능인 SN과 판단기능인 TF에서 차이점이 발견 되었다. 인문계열은 직관형이 59%로 사회과학(24%), 자연과학(36%), 공학계열(4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인문계열의 학문이 다른 계열보다 사실 보다는 이론과 관념을 다루는 분야로써 현실에 주의 촛점을 두는 감각형 보다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직관형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연과학계열에는 사고형이 70%로 인문계열(57%), 사회계열(52%), 공학계열(59%)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문에 비해 자연과학계열이 수치, 논리, 분석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자연히 사고형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선호경향과 자신이 선택하는 전공분야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학계열을 지망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과학계열 지망 대학생 793명의 유형과 비교해 볼때, 한국의 과학계열 학생들은 사고형(70%)이 많은 반면에 미국의 과학계열 학생들은 직관형(76%)이 일반 미국 학생들(25-3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미국 과학도들의 사고형은 51%이며, 한국 과학도들의 직관형은 36%였다. 이 차이점은 한국의 과학도들은 사실적, 실용적 현실위에 체계와 논리, 분석의 기능을 적용하며, 미국의 과학도들은 관념과 상상, 추상의 세계와 미래의 가능성위에 창의적 기능을 적용하는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다음 표 14는 한국의 일반인(30, 40, 50대)의 성격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N=401 (M=188, F=213)

|    | N   | %     |
|----|-----|-------|
| E  | 145 | 36.16 |
| I  | 265 | 66.08 |
| S  | 327 | 81.55 |
| N  | 74  | 18.45 |
| T  | 288 | 71.82 |
| F  | 113 | 28.20 |
| J  | 312 | 77.81 |
| P  | 89  | 22.29 |
| ST | 242 | 60.35 |
| SF | 85  | 21.20 |
| NF | 28  | 6.98  |
| NT | 46  | 11.47 |
| SJ | 270 | 67.33 |
| SP | 57  | 14.21 |

한국의 남녀 30, 40, 50대층의 일반인들은 대체로 내향성(66%)이 외향성보다 많으며, 감각형(82%)이 직관형 보다 많고, 사고형(72%)이 감정형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고, 판단형(78%)이 인식형보다 많았다. 여기서 나타나는 한국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근면 성실과 강한 책임감과 일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것은 경제발달과정에 적응하기 적합한 성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이러한 성향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성향이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5 연령층에 따른 성향의 차이

|       | 고등학생<br>(N=1,142) | 대학생<br>(N=1,442) | 일반인<br>(N=402) |
|-------|-------------------|------------------|----------------|
| 내향(I) | 51 %              | 56 %             | 64 %           |
| 외향(E) | 49 %              | 44 %             | 36 %           |
| 판단(J) | 45 %              | 55 %             | 78 %           |
| 인식(P) | 55 %              | 45 %             | 22 %           |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내향성 비율과 판단형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일반인은 대체로 내향성(66%)이며 청소년층으로 내려갈수록 외향성 비율이 높아지고, 대체로 판단형이나 20대와 청소년층으로 내려갈수록 인식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MBTI한국 표준화 과정의 연구(심혜숙, 1990)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연령층 사이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성향의 차이점은 몇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격유형 발달에 있어서 환경적인 지배로 개인의 선호경향은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에

의향성의 비율이 높고 자율적인 경향인 인식기능이 높은 선호를 보이거나,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점차 내향적이고 판단적인 경향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문화가 전반적인 내향적 경향의 문화이며 전통과 체계를 중시하는 판단형(J)의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순응하도록 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개인은 그 요구에 적응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야기되는 질문은 문화가 개인선호경향 발달에 영향을 먼저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선호경향의 개인들이 대다수 이기에 그러한 유형들에 의해 그 사회의 문화가 특징지어져 형성되고 유지되어 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20대 30대를 거치가면서 자기성격 발달과정에서 문화 환경적 적응에 따르는 갈등을 많이 겪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16에는 한국의 대기업체들중의 한기업체에서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성격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16 기업체 신입사원  
N=1,782(20대 남자)

|    | N    | %     |
|----|------|-------|
| E  | 985  | 55.27 |
| I  | 797  | 44.73 |
| S  | 1312 | 73.63 |
| N  | 470  | 26.37 |
| T  | 1385 | 77.72 |
| F  | 397  | 22.28 |
| J  | 1139 | 63.92 |
| P  | 643  | 36.08 |
| ST | 1038 | 58.25 |
| SF | 274  | 15.38 |
| NF | 123  | 6.90  |
| NT | 347  | 19.47 |
| SJ | 894  | 50.17 |
| SP | 418  | 23.46 |

또 하나 이 그룹의 특성은 지금까지 각각 다른 연령층의 한국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외향성 보다는 내향성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서 이 그룹은 외향성(5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남자들이 대체로 내향성의 비율이 외향성보다 높으나 20대 중반의 기업체 남자 신입사원들은 외향성(55%)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취업의 경쟁속에서 적극적 자기표현의 요구에 적응해 나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음 표 17은 자동차 생산직에 종사하는 41명의 성격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17 자동차 생산직 종사자  
N=41(남: 35세-45세)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b>ISTJ</b><br>N = 20<br>% = 48.70<br>██████████<br>██████████<br>██████████<br>██████████<br>██████████ | <b>ISFJ</b><br>N = 1<br>% = 2.40<br>█     | <b>INFJ</b><br>N = 0<br>% = 0.00 | <b>INTJ</b><br>N = 0<br>% = 0.00 |
| <b>ISTP</b><br>N = 1<br>% = 2.44<br>█                                                                    | <b>ISFP</b><br>N = 1<br>% = 2.44<br>█     | <b>INFP</b><br>N = 0<br>% = 0.00 | <b>INTP</b><br>N = 0<br>% = 0.00 |
| <b>ESTP</b><br>N = 4<br>% = 9.76<br>████████                                                             | <b>ESFP</b><br>N = 3<br>% = 7.32<br>█████ | <b>ENFP</b><br>N = 0<br>% = 0.00 | <b>ENTP</b><br>N = 0<br>% = 0.00 |
| <b>ESTJ</b><br>N = 11<br>% = 26.83<br>██████████<br>██████████<br>████████                               | <b>ESFJ</b><br>N = 0<br>% = 0.00          | <b>ENFJ</b><br>N = 0<br>% = 0.00 | <b>ENTJ</b><br>N = 0<br>% = 0.00 |

|    | N  | %      |
|----|----|--------|
| E  | 18 | 43.90  |
| I  | 23 | 56.10  |
| S  | 41 | 100.00 |
| N  | 0  | 0.00   |
| T  | 36 | 87.80  |
| F  | 5  | 12.20  |
| J  | 32 | 78.05  |
| P  | 9  | 21.95  |
| ST | 36 | 87.80  |
| SF | 5  | 12.20  |
| NF | 0  | 0.00   |
| NT | 0  | 0.00   |
| SJ | 32 | 78.05  |
| SP | 9  | 21.95  |

위 표에 의하면 자동차 생산직 종사자 41명중 48.7%가 내향적이고 감각과 사고기능을 선호하는 판단형(ISTJ)이다. 현실에 주의집중을 잘하며 치밀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반복적인 단순작업을 견뎌내는 ISTJ형의 특성이, 정밀한 기계 생산직에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1명 모두가 감각형(100%)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또 다른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 보다는 미래의 가능성과 상상력, 그리고 관념의 세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관형이 생산직 분야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되고 있다. 이 그룹 역시 내향성(56%)이 외향성 보다 그 비율이 높으며, 사고형(88%)이 절대적으로 감정형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생산직에서는 인간중심의 가치 보다는 일 중심의 가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다음 표 18에서는 한국의 일반인 여자 327명의 성격유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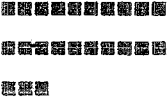
N = 327

|    | N   | %     |
|----|-----|-------|
| E  | 127 | 38.80 |
| I  | 200 | 61.20 |
| S  | 268 | 82.00 |
| N  | 59  | 18.00 |
| T  | 210 | 64.20 |
| F  | 117 | 35.80 |
| J  | 263 | 80.40 |
| P  | 64  | 19.60 |
| ST | 179 | 54.70 |
| SF | 89  | 27.20 |
| NF | 28  | 8.60  |
| NT | 31  | 9.50  |
| SJ | 225 | 68.80 |
| SP | 43  | 13.10 |

또한 한국 여성들은 판단형(80%)이 인식형(20%) 보다 월등히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일반 여성들이 대체로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처리해 나가는 '또순이' 형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한국 여성들은 판단형 보다 인식형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십대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성격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의 갈등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66

표19 프로야구 선수팀  
N=66

| 감 각                                                                                                                       |                                                                                                                         | 직 관                                                                                                                   |                                                                                                                         |
|---------------------------------------------------------------------------------------------------------------------------|-------------------------------------------------------------------------------------------------------------------------|-----------------------------------------------------------------------------------------------------------------------|-------------------------------------------------------------------------------------------------------------------------|
| 사고                                                                                                                        | 감정                                                                                                                      | 감정                                                                                                                    | 사고                                                                                                                      |
| <b>ISTJ</b><br>N = 13<br>% = 19.70<br>   | <b>ISFJ</b><br>N = 7<br>% = 10.60<br>  | <b>INFJ</b><br>N = 1<br>% = 1.50<br> | <b>INTJ</b><br>N = 1<br>% = 1.50<br>   |
| <b>ISTP</b><br>N = 11<br>% = 16.70<br>   | <b>ISFP</b><br>N = 1<br>% = 1.50<br>   | <b>INFP</b><br>N = 0<br>% = 0.00<br>                                                                                  | <b>INTP</b><br>N = 0<br>% = 0.00<br>                                                                                    |
| <b>ESTP</b><br>N = 15<br>% = 22.70<br> | <b>ESFP</b><br>N = 1<br>% = 1.50<br> | <b>ENFP</b><br>N = 0<br>% = 0.00<br>                                                                                  | <b>ENTP</b><br>N = 0<br>% = 0.00<br>                                                                                    |
| <b>ESTJ</b><br>N = 13<br>% = 15.20<br> | <b>ESFJ</b><br>N = 1<br>% = 1.50<br> | <b>ENFJ</b><br>N = 0<br>% = 0.00<br>                                                                                  | <b>ENTJ</b><br>N = 2<br>% = 3.00<br> |

|    | N  | %     |
|----|----|-------|
| E  | 32 | 48.50 |
| I  | 34 | 51.50 |
| S  | 62 | 94.00 |
| N  | 4  | 6.00  |
| T  | 56 | 85.00 |
| F  | 10 | 15.00 |
| J  | 38 | 58.00 |
| P  | 28 | 42.00 |
| ST | 52 | 79.00 |
| SF | 10 | 15.00 |
| NF | 1  | 1.00  |
| NT | 3  | 5.00  |
| SJ | 36 | 55.00 |
| SP | 26 | 39.00 |

표 19에 나타난 프로 야구팀은 내향성(52%)이 외향성(48%) 보다 약간 높다. 이것은 한국의 20대 남자들의 전반적 경향과 매우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이 결과는 운동 선수들의 성격이 활발하고 활동적인 외향성이 많으리라는 일반적 추측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 팀은 감각형(94%)이 직관형(6%) 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형(85%) 역시 감정형(15%) 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를 현실상황에 비추어 볼때, 반복된 훈련(Drill)을 지속적으로 견뎌나가야 하고 즉각적인 게임상황에 실제로 맞추어나가야 하는 전문 야구팀의 특성에 맞추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또한 앞에서 보여진 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계열별간의 유의미한 관계, 일반인의 성격유형과 직업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보여진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VII.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생과 일반인에 비해서 외향성이 6-13%정도 높으며, 인식형의 비율도 두 성인 그룹에 비하여 10-23%정도 높게 나타났다. 자기표현과 자율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적이며, 주입식 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학생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각적 사고형의 판단형(STJ)들이 직관적 사고형(NT)보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속한다는 허정(1991)의 논문 결과와 연관지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사실적이고 체계적이며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과목이 많은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제도 안에서 STJ형들은 적응을 잘 하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추상의 세계를 분석 탐구하려는 경향을 지닌 직관적 사고형(NT)들이나 직관적 감정형(NF) 또는 인식형(P)들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절대 다수가 감각형(82)이고 사고형(64%)이며 판단형(80%)인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향으로 미루어 볼때 자기표현과 자율을 강하게 선호하는 심대의 남자 자녀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역시 일반적으로 내향성 비율(56%)이 높으나, 같은 20대 이지만 외향성 비율(55%)이 높은 기업체 신입사원들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신입사원들은 취업이라는 경쟁속에서 환경이 요구하는대로 임의적 선호경향으로 자신의 선호도를 변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편에서도 자신의 본래 선호경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경향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사회환경의 요구에 따라 다소의 변형이 초래되는 위와같은 현상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과 프로야구팀에서도 보여졌고, 외국의 연구에서도 수차례 걸쳐 입증되었다.(Mcdaid, 1986)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내향(I)과 감각(S), 사고(T)와 판단(J)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Jung(1923)이 말했듯이 문화권에 따라서 성격유형의 분포비율이 다르리라는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겠다. 즉 한국인은 서구 문화권 인구에 비해 외향성 보다는 내향성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서구문화권 인구에 비해 사고형이 4-5% 더 높으며 감정형 비율이 낮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서구 문화권의 여성들은 58-62%가 감정형(F) 인데 비하여 한국의 여성들은 그 반대로 56-62% 정도가 사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고력보다 감정의 기능을 더 쓴다는 일반적 통념을 깨트린 것으로, 동서양이 문화권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의 성격 선호 경향이 현저히 다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고 형과 감정형의 비율의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여성들이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자녀교육방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녀교육방법과 그들의 성격유형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인의 선호경향은 서구인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에서 발달해 온 상담이론과 기법을 한국의 내담자들에게 활용할 때 한국인과 서구인의 기질적 차이를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이는 또한 서구 문화권에서 발달한 여러가지 상담기법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때,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에 따른 성격유형의 특징과 이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MBTI의 연구는 내담자의 성격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상담관계와 상담기법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내담자의 자기이해와 수용도를 높여 대인관계의 갈등을 이해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나아가서는 상담자의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상담기법, 그리고 내담자의 성격유형과 상담자의 성격유형의 차이가 상담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상담의 효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MBTI는 개인의 직업과 그 개인의 선호경향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BTI가 개인의 자기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고, 직장에서의 대인관계훈련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개인의 선호경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개발해 내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인사배치와 직무배당분야에서도 개인의 선호경향을 감안한다면 업무수행을 촉진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성 때문에 오늘날 MBTI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 REFERENCES

- Anastasi, A. (1988). *Psychological Testing* (6th ed.), New York: The Macmillan Co.
- Anastasi, A. (1966). *Testing Problems in Perspective*.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Barclay, J. (1968). *Controversial Issues in Test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Berrien, F. K. (1967). Methodological and Related Problems in Cross-cultur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 (1), 33-43.
- Bradway, K. (1964). Jung's Psychological types: Classification by Test versus Classification by Self.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9, 129-135.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3), 185-216.
- Brislin, R., Lonner, W., & Thorndike, R. (1973).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s*. New York: Wiley.

- Brislin, R. W. (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s. In H. C. Triandis & J. W. Berry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 Methodology*. (pp.389-444). Boston, MA: Allyn and Bacon, Inc.
- Carlson, R. (1985). *Comparison of MMPI Scores between Asian-American and Caucasian Male Seminary Students (Subtle-Obvious)* (Doctoral Dissertation, Rosemead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1985).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 05B.
- Ditiberio, J. (1976). *The Strength of Sensing-Intuition Preference o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s Related to Empathic Discrimination of Overt or Covert Feeling Messages of Other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 5599-A.
- Fordam, F. (1973). *An Introduction to Jung's Psychology*. Baltimore: Penguin Books.
- Franz, M. & Hillman, J. (1979). *Jung's Typology*. Texas: Spring Publications Inc.
- Hurh, J. (1991) 고등학교 행정의 실적평가에 관한 연구 (C. G. Jung의 성격유형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Inclan, A. (1984) Cross-Cultural Analysis of Language in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198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04A.
- Jung, C. G. (1931). *A Psychological Theory of Types*. In *Collected Works*, Vol.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36). *Psychological Typology*. In *Collected works*. Vol.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76).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cdaid, J., McCaulley, M., Kainz, R. (1986). *Atlas of Type Table*. Vol. I & II. CAPT Gainesville, FL.
- McCaulley, M. (1978). *Applic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to Medicine and other Health Professions*. (Monograph 1). Gainesville, FL: Center for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ypes.
- McCaulley, M. (1981). Jung's Theory of Psychological Types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5 Gainesville: CAPT, Inc.
- Myers, I. B. (1980). *Gifts Differing*.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Myers, I. B. & McCaulley, M. (1985).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da, E. (1976).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ories of Translation. In R. W. Brislin (ed.), *Translation: Applications and Research* (pp.47-92). New York: Gardner Press, Inc.
- Osgood, C. E., May, W., & Miron, M.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Chicago, IL: University of IL. Press.
- Quenk, A. (1978).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therapy*. Gainesville: CAPT Publications.

- Sim, H.(1990). *A cross-cultural Study a Personality inventory*. Doctoral Dissertation, Saint Louis University, Missouri.
- Sim, H. & Kim, J. (1990). *The Development of Valid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the Korean Language*. Journal of the Psychological Type. (in print). Gainsvill, FL.
- Thorndike, R., & Hagen, E. (1955).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ABSTRACT

###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consideration of two related issues : the need to develop culture-fair personality inventories for the Korean population ; and the degree to which C.G.Jung's theory of psychological type is applicable to nonwestern cultur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was to standardize and to introduce the Korean vers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an instrument which measures Jung's theoretical construct in order to help the counseling field in Korea.

The first step of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01 Korean-American Bilingual subjects(Korean-English) drawn from six different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141 college students, 232 high school students and 200 working adults drawn from various cities in Korea. The total sample number was 774.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BTI were tested and received satisfactory results.

The second step of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Korean norm for the type distribution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working adults in Korea. For this purpose, research samples were drawn from Seoul and local areas in Korea: 1,142 high school students, 1,441 college students, and 2,617 adults. The total sample was 5,200.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type distribution for each group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ir counter groups in Western culture. The authors included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ies to explore different avenues and ways to use the MBTI in the field of the counseling as well as organizational settings.